

도키·코포레이션(トキ・コーポレーション株式会社) 꿈, 지금 실험중입니다.

(1) 기업개요

소재지	東京都大田区大森北3-43-15
설립연도	1971년
분야	장식용 조명기구, 간접 조명기구, LED 조명기구 제조 판매
자본금	4,000만 엔
URL	http://www.toki.co.jp

(2) 조명의 진화

1897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인간은 활동영역을 어두웠던 밤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인간이 느끼는 색과 빛의 근원인 태양빛을 밤에도 내보냈다는 것이 조명연구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거꾸로 사람들의 밤 활동을 점점 확대시킨 결과를 낳기도 했다. 밤에도 낮같이 활동할 수 있게 편리한 문명이기(文明利器)였던 전등. 유구한 인류역사에서 최근 1백년 사이의 일이다. 그러나 조명은 거듭 진화하고 있다. 이제 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더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창조하는 디자인시대로 접어들었다.

실내외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결정짓는 장식조명은 일찍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928년 개선문이 조명으로 거듭 태어났고 콩코드광장의 화려한 조명은 큰 화제가 되었다. 문화재와 건물들을 비추는 거리조명이 이때부터 파리를 본보기로 유럽전역에 퍼져나갔다.

지금은 밤거리가 아름다워야 관광객이 몰리고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앞 다투어 야경꾸미기에 한창이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의 시장선거에선 ‘도시조명’이 공약으로 나왔었다. 당시 미셸누아르 시장은 공약대로 1989년부터 5년간 알랭 귀로 등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초청해 시내 1백30개 건축물과 다리에 조명시설을 했다. ‘밤의 도시’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 조명계획은 컨벤션센터 사업과 연결돼 G7등 주목받는 회의를 치르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역사 깊은 도시, 실크와 음식문화로 유명한 리옹은 이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자랑을 하나 더 보탤다. 일본의 고도(古都) 교토(京都)시도 1994년 수도지정 1천2백주년 기념으로 이 도시의 역사 문화재에 조명 디자인 계획을 내놓았다. 4개의 큰 절 건물과 주변 숲에 전문디자이너들의 빛의 작품이 색다른 야경으로 선전되고 있다. 서울에도 남대문, 예술의전당 등 대형건물의 장식조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거리조명이 전부가 아니다. 가게의 매출은 조명에 따라 달라진다. 문 닫은 밤중에 장식조명을 비추면 다음날 매출이 늘어난다. 조명을 통한 마케팅기법이 일반화할 정도로 지금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장식조명이 되었다.

이렇듯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장식조명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기업이 일본에서는 도키 코포레이션이다.

(3) 성장과정과 Only-One 기술

회사가 설립된 것은 1971년이다. 설립당시에는 해외의 새로운 기술과 신소재를 일본국내에 소개하는 기술정보서비스 사업을 주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조명기구업체와 인연을 맺은 것이 장식조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업체는 테마파크 등의 시설에 장식조명기구를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건물은 물론 실내를 효과적으로 꾸미는 장식조명이라는 유망한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키 코포레이션은 이러한 정보를 얻어 이미 취급하고 있었던 수지 필름과 표시용 소형전구를 기술적으로 조합하면 보다 우수한 장식조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바로 개발에 착수하여 1981년 초 자사브랜드 제품인 ‘도키스타 테이프라이트’의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장식조명의 주류는 투명파이프에 수십 개의 소형전구를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구 하나가 꺼지면 블록 전체가 꺼져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해 도키 코포레이션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은 테이프 모양의 플랫 케이블(flat cable)에 전구를 넣은 것으로, 모든 전구가 독립된 병렬회로구조로 되어 있어 꺼진 전구만 교환하면 된다. 따라서 조명을 관리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품의 장점을 높게 평가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업체들이었다. 조명이 영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 카지노 업체들은 수십만 개의 전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키 코포레이션의 제품을 대량 구매했다. 1986년에 미국 디즈니랜드의 테마파크에 납품하면서 미국에서의 지명도는 급상승했다. 이러한 해외시장에서의 활약이 일본 국내시장으로 파급되면서 일본 내 장식조명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과거실적을 중시하는 일본유통의 고유특성은 미국에서 성공한 도키 코포레이션에게는 더할 것 없는 최적의 사업환경이었다.

한편 옥외조명뿐 아니라 고급호텔, 극장 등의 실내를 빛으로 아름답게 연출하는 간접조명기구도 ‘어드벤처이지’라는 자사브랜드로 제품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제품개발에 있어서 일관되게 ‘조명 본래의 기능 및 아름다움을 연출한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구의 반사판은 항상 오목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볼록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것은 일부러 빛을 난(亂)반사시켜 고르게 비추기 위해서였다. 또한 소켓은 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얇게 만든다.

차세대 조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에서도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방위발광형’ 등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여 호평

을 받고 있다. 조명은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면서 예술분야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예술이 무궁무진하듯이 도키 코포레이션의 미와 기술을 융합하는 실험은 끝이 없어 보인다.

(4) 향후 전망

신제품기획, 연구개발, 신소재활용에 독자적인 기술을 연마하여 독창적인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을 자사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이미 120여개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꿈, 지금, 실험중입니다” 라는 독특한 기업이념이 유난히 돋보이는 기업이다. 좋은 밭에서 좋은 과실이 자란다는 문구가 이 회사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업체 최초의 투명소켓을 만들어 조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 전방위발광형LED램프를 고안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등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차세대 작동기(actuator)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금속계 인공근육 ‘바이오메탈’은 20년이 넘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인공장기 및 모바일 기기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응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야마토미싱 홈페이지(<http://www.yamato-sewing.co.jp>)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J-Net21 홈페이지(<http://j-net21.smrj.go.jp>)